

세계적 사회운동 조합주의를 향하여?(상)

남아프리카 노동조합의 세계화 대응

필자: 안드리스 베주이덴후트 남아프리카 위트워터스란트대학교 교수

번역: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실장

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 부설 국제노동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에서 나온 『Toward global social movement unionism? Trade union responses in globalization in South Africa』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안드리스 베주이덴후트(Andries Bezuidenhout)는 남아프리카 위트워터스란트(Witwatersrand) 대학 교수이다.

이 글은 남아프리카의 민중권력(People's Democracy), 즉 ANC 정부가 세계화의 압력 하에서 신자유주의로 경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사회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부터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라는 '이중 이행'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COSATU의 활동과 고민을 소개하고 있다. 분량 관계로 이번 호에는 서문과 1부를, 다음 호에는 2부를 실는다.

서문

1부

- 1.1 서문
- 1.2 노동운동의 발흥
- 1.3 '자주적' 노동조합의 발흥
- 1.4 이행: 정치적 민주화
- 1.5 연속: 경제적 정통주의
- 1.6 결론

2부

- 2.1 서문
- 2.2 조합원 확대 캠페인
- 2.3 노조 구조와 재정
- 2.4 지역 및 세계차원의 행동
- 2.5 집단행동과 제도적 혜택
- 2.6 집단행동과 사회적 동맹
- 2.7 노조와 여론
- 2.8 노조 행동을 위한 폭넓은 의제:
세계적 사회운동 조합주의를 향하여?

서문

세계화는 날로 증가하는 시장에 의한 경제적 관계의 규제에 의존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국민 정부는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즉 민영화·통화 자유화·수입관세 인하·노동시장 유연화·재정건전화 원칙(fiscal discipline)의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무역 장벽이 와해됨에 따라 각국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인디아는 1990년에 82%였던 평균 수입관세를 1997년에는 12%로 인하했으며, 중국의 경우 1992년에 43%였는데 1997년에는 18%로 인하했다(UNDP, 1999, 29쪽). 반면 남아프리카는 생산된 재화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를 1994년의 14%에서 1998년에 5.6%로 인하했다(ILO, 1999, 76쪽). 이것은 각국의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임금과 노동조건의 "동반 하락"(levelling down)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나라들 사이에 돈과 재화의 흐름 또한 증가해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4년 4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1970년대의 7배나 된다. 현재 수출되는 재화는 그 가치가 7조 달러에 달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급속한 속도로 커지고 있다. 1990년에 11,300건의 인수합병이 있었으며, 1997년에는 두 배로 늘어 24,600건에 달했고, 국가간 인수합병은 2,360억 달러에 이르렀다. 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남아프리카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의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많은 연내출액을 기록하고 있다(UNDP, 1999, 31-32쪽).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같은 사용자들 통해서나 혹은 온순하고 값싼 노동이 있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위협을 통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캠페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점차 깨닫고 있다. 호주 부두노동자 파업에서의 초국적인 단체행동,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애틀 회의 기간 동안 진행된 국제자유노련(ICFTU)의 사회헌장 캠페인 활동 같은 최근의 사건들은 조직 노동이 일국 차원에서만 세계화의 영향에 대응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Taylor, 1998).

하지만, 램버트(Lambert 1998, 73쪽)는 많은 노조가 실리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의 형태로 세계화에 대응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작업장에 기반한 협소한 초점과 지역사회 단체들에 대한 개입의 실패로 특징지어진다." "사회변화(social transformation)의 전망"은 없다. 실리적 조합주의는 노조가 "세계화의 논리를 노조 개입의 이유로 받아들이" 때 세계적 실리적 조합주의가 된다.

세계 경제에서 노동자들의 지위가 약화되어온 핵심 이유 중 하나를 제대로 이

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조합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실제 일국적 일뿐 아니라 세계적이기도 한 경제에 대해 일국적인 협소한 관심을 가져온다. 리처드 하이만(Richard Hyman)은 "실제 일어난 것은 노동조합운동 일반의 위기라기보다는 협소한 기반을 가진 특정 유형의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라고 주장한다(in Munck, 1999, 12쪽).

램버트는 세계적 사회운동 조합주의(global social movement unionism)라는 대안적인 노조운동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적 사회운동 조합주의는 노조가 직장, 시민사회, 국가와 세계적 힘들 사이의 연결을 의식하고, 이러한 영역의 운동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 세계화의 해로운 압력에 저항하는 전략을 개발할 때 생겨난다(1998, 73쪽).

그는 사회운동 조합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로 남아프리카를 든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활동했던 남아프리카의 노조 지도자들은 이러한 접근방식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직장 차원의 협소한 전망으로는 이것이 아무리 전투적이라 할지라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없음을 의식하고 있었다(Lambert, 1998, 73-74쪽).

그러나 남아프리카의 사회운동 조합주의의 형태는 이 나라의 매우 구체적인 캠페인, 즉 아파르트헤이트 반대투쟁과 관련되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 차원을 끌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계적 사회운동 조합주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남아프리카의 새 국가는 여전히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 캠페인에만 기반한 사회운동 조합주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로 나갈 수 없다(UNDP, 1999를 보라).

이 사례연구는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조사한다. 그것은 남아프리카 노동조합들이 전통적인 구성원(constituent)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어느 만큼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해왔는지, 새로운 구성원들을 조직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지,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시도다.

1부는 노동운동이 조직한 전통적인 캠페인들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남아프리카 노동진영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반대투쟁에의 참여는 노사관계제도 및 평범위한 사회제도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노동자 권리는 새 헌법에 공식적으로 새겨졌으며, 노·사·정은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NEDLAC)라는 정식 토대 위에서 경제·개발 정책을

협상한다. 1980년대 이래, 몇몇 산업들에서 대단히 전형적인(representative) 중앙교섭을 향한 경향이 있어 왔다. 자유로운 단체협상 과정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보호하고 고용평등을 증진하는 내용의 법률이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화 과정은 노사관계의 사회적 규제에 대한 반감이 증대하는 거시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했다. 수입관세 인하, 민영화, 통화 자유화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경직된 입장은 시장의 규제를 향한 일정한 압력을 촉진시킨다. 관세인하, 비정규직화에 대한 사용자 의 의존, 노동강도 강화 등 정부가 야기한 새로운 압력, 즉 “노동시장 유연성” 요구는 1980년대 이래 여러 캠페인들을 통해 얻어낸 중앙화된 제도와 최저노동기준에 도전이 되고 있다. 웹스터(Webster)와 아들러(Adler)는 경제적 자유화의 조건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이중 이행”(double transition)이라 부른다(1998).

2부는 세계화 상황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캠페인들을 개괄하고 있다. 조합원 캠페인의 변화, 노조의 구조와 재정, 세계적·지역적 캠페인, 집단적 행동과 제도적 이익, 집단적 행동과 사회적 연대, 노조에 대한 여론 변화 등에 주목한다.

기본적인 전제는 노동조합은 세계 여러 곳에 존재하며, 서로 다른 정치 체제 아래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조는 서로 다른 발전경로를 밟아왔다. 예를 들어, 서유럽의 노조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동원화(mobilization)를 겪었고,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는 코포라티즘, 그 후에는 분권화, 유연화, 몰락을 경험했다(Regini, 1992). 이것은 대개 사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상황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많은 남반구(the South) 노동조합들은 노동억압 체제 아래서 민주주의를 위한 광범위한 투쟁에 개입했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운동은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에서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었다(Webster, 1985; Seidman, 1994).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으로 얻어진 민주화 과정 중 일부는 노동조합과 노동권에 적대적인 경제적 환경에서 이뤄졌다. 전통적으로 사회운동 노총으로서 활약했던 코사투는 세계화 아래서 기존 권리를 방어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것은 남반구의 몇몇 노조들로 하여금 주의를 밖으로 돌려도록 만들었으며, 북반구의 노조들처럼 노조 인정과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다른 사회운동 노조들과의 연대를 표명토록 만들었다.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 사례를 이용하여 실천을 위한 확장된 의제로서 보다 광범위한 세계적 사회운동 형태의 노동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1부

1.1 서문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발흥은 민주화 과정에 개입하고, 사상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노동자들에게 주었다. NEDLAC같은 제도적 기구들은 변화 과정을 진보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가능성은 1994년 선거 전후로 "근본적 개혁"(radical reform)이라 불렸다(Adler and Webster, 1995).

하지만, 그 후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도록 남아프리카의 경제관계를 사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견해는 세계화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이행에서 영향을 받았다.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처럼(UNDP, 1999) 남아프리카는 사회적 규제를 통한 보다 평등한 자원 분배 대신에, 시장 규제의 확대로 더욱 치달았다. 지금, 웹스터와 아들러(1998)는 이것을 근본적 개혁 대신에 "교섭된 자유화"(bargained liberalization) 과정에 기초한 "이중 이행"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담론은 "권리의 언어"에서 "시장의 언어"로 변했다.

1부에서는 경제적 정통주의로의 회귀가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이 민주화 과정에 끼친 영향을 설명한다. 1부에서는 다음을 다룬다.

- 1970년대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이전에 출현했던 노동운동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

-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과 캠페인의 출현을 초래했던 조건에 대한 설명.

- 1990년대 초반의 정치적 이행에 관한 토론과 캠페인, 헌법과 법률에 노동 진영의 성과를 आरो새기기 위한 캠페인.

- 세계화가 어떻게 새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설명.

여기서 제시하는 분석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대강의 윤곽을 제시하고, 세계화 국면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변환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논의는 전통적인 노동조합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러한 캠페인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2부는 보다 최근의 캠페인에 초점을 맞춘다.

1.2 노동운동의 발흥

남아프리카의 노동운동은 조직화와 조직 소멸(disorganization)의 순환을 겪고 있다. 1800년대 말 금과 다이아몬드의 발견으로 산업화가 촉발되었을 때, 많은 노조들이 사회운동으로서 등장했다. 하지만, 몇몇 운동들은 다시 사라졌다. 많은 경우에, 노조들은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합법성" 때문에 유지될 수 없었다. 구조들은 취약했고,

해방운동과 공개적으로 결합된 지도자들이 정치적 반대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기소될 수 있었다.

흑인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최초의 중요한 노동운동은 산업상업노동조합(ICU)이라는 형태로 1920년대에 출현했다. 이 일반노조는 처음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나중에 대규모 성장에 맞춰 조직구조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해 몰락했다. 일반노조를 보다 작은 산별노조로 나누자는 주장은 거부당했다. 또한 내부 부패와 관료화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Simons and Simons, 1983, 353-385쪽).

ICU는 조합원들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했지만, 노동조합남아프리카회의(SACTU)는 공개적으로 ANC운동(the Congress movement)과 제휴하였다. 그리고 많은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에 의해 추방당하자, 자연스럽게 망명 노조운동으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SACTU는 내부적으로 붕괴했다. 하지만, 런던의 새 사무실에서 망명 SACTU는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투쟁을 계속 했다. 1990년에 SACTU는 남아프리카로 귀환했고, 코사투와 통합했다(Roux 1990).

한편으로, ICU는 조직 구조를 조합원의 급속한 확대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붕괴했다. ICU는 내부 알력과 부패로 결정타를 입었다. 다른 한편으로, 노총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지도자들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기구에 의해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고, 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SACTU는 망명길에 올랐다. 노동운동가들은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배웠고, 1970년대 이후 강해진 노동운동은 책임성 있는 작업장 조직을 건설하고, 해방운동의 정치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피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는 최근의 역사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수를 늘린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다. 노총들 가운데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 코사투)는 조합원수 170만 명으로 현재 가장 강력하다. 이러한 성공의 뿌리는 앞에서 말한 조건들을 활용한 효과적인 형태의 조직화와 결부되어 있는 특정한 구조적 조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3 "지주적" 노동조합의 발흥

1924년의 노사조정법(the Industrial Conciliation Act) 이래, 흑인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종업원"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파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반면, 백인 노동자들은 일정한 수의 사용자·종업원 대표를 가진 산업에 구성되어 있는 산업별교섭위원회(Industrial Councils)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 남아프리카는 팔복

활만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지만,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입대체산업 정책, 거대 기업의 공적 소유를 통한 국가의 상당한 경제 개입, 그리고 외환 통제가 존재했다. 값싼 노동과 결부된 상대적으로 높은 금값은 안정적인 세금 징수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전투적인 사회운동 조합주의의 등장은 이러한 체제에 실질적인 도전이었다.

코사투의 등장은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73년 1월, 대략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더반-파인타운 지역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졌다(Webster, 1995, 1쪽). 이 파업은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 다시 말해 기존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파업 이후, 노동자들은 현장위원들에 기반한 작업장 조직이라는 영국 모델에 따라 노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 노조들은 백인 노동자와 국가가 지배하는 기존 노조와는 별도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자주적 노동조합”이라 불렸다(Maree, 1987, 8쪽; Wood, 1999; Friedman, 1987).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많은 노조 조직가들은 해방운동과 공개적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대신, 그들은 현장위원회(shop stewards committee)에 기반을 둔 튼튼한 현장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처음에 운동은 살아남기 위해 투쟁했지만, 1970년

대 말부터 조합원수가 급증했다. 노조는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공식적인 배제 체제를 무시하면서 단체교섭 전략의 대안을 개발하고, 개별 기업과 노조 안정 협약을 맺기 시작했다. 이 협약은 보통법에 토대를 두었으며, 대신 분산된 단체교섭 체도를 가져왔다. 1979년, 5개의 인정 협약이 있었는데, 그 수는 1983년에 406개로 늘어났다(Maree, 1987, 8쪽). 1979년 4월에, 몇몇 노조들이 모여 조합원 2만 명의 남아프리카노동조합연맹(FOSATU)을 결성했다(Buhlungu, 1999, 4쪽).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1977년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는 뷔하혼 조사위원회(the Wiehahn Commission)를 설립했다. 위원회 권고에 기초하여, 1979년 정부는 개정 노사관계조정법을 통과시켰다. 흑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종업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제한된 권리가 허용되었다. 뷔하혼 체제는 신생 노조들을 중앙 산별교섭위원회 체제에 편입시키려고 의도했지만, 대신 노조는 계속해서 현장 조직을 확대했다. 노조는 새 법이 만들어준 합법적 공간, 특히 “부당노동행위” 개념을 활용하여, 노동법원(Industrial Court)에서 사용자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싸웠다. 나중에 산업 수준에서 훨씬 잘 조직되었을 때, 노조는 부문 수준(sectoral level)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Friedman, 1987).

1950년대 설립되었을 때부터, 산업별

교섭위원회는 백인노동자들을 위한 느슨한 연맹체였던 남아프리카노동조합협의회(TUCSA)가 지배했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자주적 노동조합들이 도전하기 시작하자, 이 노동조합들은 흑인노동자들의 이해를 수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몇몇 가맹조직들은 흑인지부와 백인지부를 나눴다. 1980년대 초반까지, TUCSA가 연맹으로서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점은 분명했고, 결국 1986년 해산했다(Bendix, 1996, 201-210쪽).

1985년에, FOSATU에 가맹된 노조들은 전국광원노조(NUM)를 비롯한 몇몇 노조들과 함께, 남아프리카노동조합협의회(COSATU, 코사투)를 결성했다. 코사투는 조합비 납부(paid-up) 조합원 462,359명을 대표하는 33개의 노조로 출발했다. 코사투는 등록된 노동조합원수의 33%를 대표했다(Buhlungu, 1999, 4쪽). 새 노총은 노동자 통제의 진통에 대한 충성을 약속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출된 현장위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 구조가 만들어졌다. 출범 총회에서, 코사투는 자유헌장(the Freedom Charter)의 원리들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지만,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조직에도 가입하지는 않았다. 코사투 출범 과정에서, 다섯 가지의 핵심 원칙이 승인되었다.

● 인종차별 반대

- 노동자 통제
-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의무 (paid-up membership)
- 국제연대
- 1산업 · 1노조, 1국 · 1노총

1986년, 아자니아노동조합협의회(AZACTU)와 남아프리카노조협의회(CUSA)가 결합하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NACTU)라는 새롭고 중요한 다른 노총을 결성했다. 새로 결성된 노총은 약 2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사투가 인종차별 반대 원칙을 고집한 데 반해, (NACTU에-역자) 가맹된 많은 노조는 흑인 리더십을 주장했다. 코사투와 마찬가지로, NACTU도 대개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조직했다. 현재, NACTU의 조합원수는 37만 명으로 추정된다(Buhlungu, 1999, 4-5쪽; Bendix, 1996, 211쪽; 227-229쪽).

1980년대 중반이래, 새로운 자주적 노동조합은 부분별 수준에서 사용자와 협상하기 위해 산업별교섭위원회 체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생산 · 금속 엔지니어링 · 의류섬유 같은 몇몇 산업에서, 산업별교섭위원회는 노조 교섭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노조는 계속해서 현장위원회를 현장조직의 토대로 만들었다. 공장과 기업 수준에서, 노조는 인정협약을 활용하여 집단적 교섭을 계속했다. 그 결과, 이중적인 단체교섭 체계가 발전했으며, 기업 수준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교섭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별교섭위원회는 노조운동이 강하고 충분한 대표성을 갖고 있던 산업에서만 만들어졌다. 전체 노사관계를 위한 이러한 기구들의 중요성은 종종 과대평가 되었으며, 특히 교섭위원회가 이른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비난받을 때는 더욱 그랬다. 비농업·민간부문 종업원 가운데 단지 36.4%만이 교섭위원회 혜택을 적용 받았다(ILO, 1999, 98쪽).

1979년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적 틀을 마련한 이래, 1980년대에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률적 범위 안에서 교섭 틀을 만드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즈음, 정부는 점차 커지는 코사투의 힘에 불안을 느꼈다. 1988년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적 공간의 일부를 폐쇄하려 시도했다. 개정안은 (법전화codification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노조를 고소할 수 있게끔 했다. 이것은 노조로부터의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파업은 사용자가 자기 입장을 재고하도록 압박했으며, 코사투·NACTU와 사용자 단체인 남아프리카노동문제협의회(SACCOLA)간의 협상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변경을 비난하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입장을 재정리하고, 규제 환경을 바꾸기 전에 조직 노동을 정책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

였다. 이러한 문제를 교섭할 3차 기구로 전국인력위원회(National Manpower Commission)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전국적인 세력으로 평가되었음을 뜻했다.

1.4 이행: 정치적 민주화

1989년 드 클레르크(F. W de Klerck)는 보타(P.W. Botha)로부터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았고, 1990년 초 정부는 모든 해방운동에 대한 불법화 조치를 해제했다. 그 결과, ANC, 국민당정부 및 몇몇 정당들이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사회의 성격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코사투는 이 협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ANC 및 남아프리카공산당과 공식적인 동맹을 형성했다.

동시에, 다른 재편성 과정이 발생했다. 이것은 조합원수가 NACTU를 능가하는 새로운 노총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결국 1997년에는 새로운 노총이 만들어졌다. 이전의 TUCSA에 가맹되어 있던 많은 노동조합들이 공식적으로 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 노조 가운데 최대 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했으며, 이들은 주로 백인 관리들이었다. 국민당이 정부를 계속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짐이 분명해졌을 때, 이들 가운데 일부 노조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노동조합총연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노동연맹(FEDSAL)이 탄생했다. 1994년에 FEDSAL은 23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FEDSAL은 다른 많은 노조들과 통합하여 남아프리카노동연맹(FEDUSA)을 만들었으며, 흑인 종업원들에게까지 조합원을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FEDUSA는 54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다.

1994년 이전의 이행 과정은 정책 결정과 지배라는 측면에서 특이한 것이었다. 국민당이 여전히 기술적으로 나라를 지배했지만, 협상에서 ANC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정통성의 부족 문제는 분명해졌다. 예를 들어, 1991년 정부는 판매세 제도를 일반판매세(GST)에서 부가가치세(VAT)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층에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코사투는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정부는 대응책으로 정책 과정의 일부로서 주요 경제 정책을 협의할 전국경제포럼(National Economic Forum)을 설립했다. 전국인력위원회와 더불어, 이 포럼은 코라타리즘적인 정책 결정 모델로의 전환을 나타냈다. 1990년대에 몇 개의 기구들(fora)이 더 만들어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일반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도 참여를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이 기구들은 전국주택포럼(National Housing Forum)과 전국전기포럼

(National Electricity Forum) 등이다.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의 정통성 부족은, 잘 조직된 시민사회 일반과 결부되면서, 헌법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참여 민주주의"를 증대시켰다.

노동조합운동은, 공공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자기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역할이 취약하고 임시적인 기구들에 기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노조는 조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얻어낸 성과들이 아무런 법률적 보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미 1989년 전국총회에서, 코사투는 노동조합이 사회에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을 명시한 노동자 헌장을 작성하기로 결의했다. 1990년, 이 문제는 새로운 관심을 얻었다. 코사투와 NACTU는 노동자 권리 캠페인(the Workers' Rights Campaign)으로 알려진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코사투는 1993년 9월 열린 특별 총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명시한 문건을 채택했다. 그 문건은 인정협약에 기초한 사업장 수준의 단체협상, 산업 수준의 산업교섭위원회와 전국경제포럼이나 전국인력위원회같은 전국 수준의 기구 참여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책참가 등 노동운동이 이룩한 성과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들을 승인하기 위해, 그 문건은 다음을 요구했다.

● 첫째, 새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체협약, 작업장에서의 대표권 및 기타 중요

한 권리에 관한 국제법인 ILO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 둘째, 새 권리법은 "노조 가입 ... 사회·정치·경제적인 사항에 관한 파업 ... (그리고) 사용자와 정부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셋째, "새 헌법과 법은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시민사회가 공공정책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넷째, 노동법은 전체 경제에서 기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법이자, "경제 전반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며, 중앙교섭제도는 모든 산업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1993년 코사투가 남아프리카의 권리법에 노동기본권을 삽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을 때, 국민당의 정책 입안자들은 단체교섭의 중앙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때 이미, 노동운동이 사용한 "권리의 언어"는 "시장의 언어"에 의해 도전받았다. 이 요구들은 1996년에 다시 법적 근거를 얻었고, 이 해 새 정부가 경제 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우위에 둔 거시경제 정책을 폐기했다.

ANC, 국민당,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가 미래 체제의 성격에 대해 협상하고 있을 때, 남아프리카금속노조(NUMSA)는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사

회 변화를 위한 전략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 전략은 국가의 역할이 남아프리카 사회 재건에서 중심적이라고 보았다. 고츠(Gotz)는 ANC 소속 협상가들이 협상에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국민당을 상대로 한 양보를 "좌익"이 받아들여도록 하기 위해 이 문건을 거래용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1999). 나라 곳곳에서 폭력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는 점과 협상 과정에서의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 협상가들이 가졌던 우려를 유념해야 한다. 그 전략은 ANC에 의해 선거강령으로 테이블에 올려졌으며, 여덟 번의 초고 작업을 거친 다음 재건개발계획(RDP)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원래 문건에 비교하면 구체적인 목표에서 희석되고 모호한 점이 있지만, RDP는 국가가 재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노동운동은 적어도 동맹 파트너인 ANC라는 공식적인 수준에서는 의제 형성에 성공했다. 그 대신, ANC는 1994년 선거 캠페인에서 코사투 조직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운동이 ANC와의 동맹을 통해 (국민들의-역사) 기본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정책입안 기구들과 가장 강력한 정당과의 전략적 동맹을 활용하여 국가 재건 과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다.

1994년 선거에서, ANC는 새로 출범

하는 국민통일정부의 다수당이 되었다. 선거 다음 해에, 코사투는 노동자 권리 캠페인에서 제안된 많은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었다.

- 첫째, 전국인력위원회와 전국경제 포럼은 새 기구, 즉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NEDLAC)로 대체되었다.

- 둘째, 새 헌법과 대중 캠페인에 관한 협상을 통해서, 코사투는 권리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새겨 넣었다. 여기에는 파업하고 노조를 조직할 권리가 포함된다.

- 셋째, 새 정부는 몇 가지 국제노동 협약을 승인했다.

- 넷째, 새 노동관계법이 NEDLAC에서 협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몇 가지 캠페인의 성과들을 공식화했다. 중앙교섭을 의무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합리화되었으며, 몇 가지 조직적 권리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관계법은 작업장 차원의 정보 접근과 공동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작업장 포럼(workplace forum)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사투는 작업장 포럼의 유용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1.5 연속성: 경제적 정통주의

“권한강화(empowerment)”에 기반한

노동관계 환경 개혁의 잠재 효과와 결부된 RDP의 철학은 국민당의 표준경제모델(Normative Economic Model)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공했다. 표준경제모델은 경제개발 정책에서 정부 역할의 제한을 주장했다. 지적했듯이, 대안적 “언어”는 “권리의 언어”였다. 1993년 일단의 연구자들, 즉 거시경제연구모임(Macroeconomic Research Group)은 이 “언어”를 거시경제 모델에 기반한 “강령”(programme)으로 해석하려 했다. 그들은 신 케인지언적 접근방식을 취했으며, 이것은 아파르트헤이트 경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조건을 교정하는데 있어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강령은 ANC 구조 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Marais, 1998과 Padayache, 1998을 보라). 공식적인 정책 수준에서, ANC는 좌파 케인지언의 입장을 채택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미 1993년에 ANC는 경제 정책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 웨스터와 아틀러(1998, 14쪽)에 따르면, 이러한 양보들은 1996년 자유주의적 거시경제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전에 일어난 우경화 신호였다.

- ANC는 중앙은행(the Reserve Bank)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조항을 받아들였으며, “초보수적인 은행장을 유입하는데 합의했다”.

- ANC는 국민당 정부가 임명한 재경

부 장관을 유임키로 합의했다.

● 역설적이게도, 1993년 11월 거시경제연구모임(MERG)이 신 케인지언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ANC는 IMF와의 8억 5천만 달러 비밀차관에 합의했다." 웹스터와 아들러(1998, 14쪽)는 "차관의 대가로 ANC는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감소를 우선하며,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 세금 인상을 안 하기로 합의했다."

1995년 후반, 국민통일정부는 민영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분명한 점은 대안적 언어가 국민당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1996년, 기업측 싱크탱크인 남아프리카 재단(SAF)은 경제자유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증대시킬 것을 제안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것은 교섭위원회(the Bargaining Council) 제도와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규제에 대해 남아프리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연성의 언어"를 도입했다. 이 문건의 배포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권리의 언어"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 도전이었다. 세계화의 국면 속에서, 정부는 "규제적인" 관행을 줄이고 시장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려 했다. 문건은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Bezuidenhout와 Kenny를 보라, 1999).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는 주장은 경험

적 근거가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없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는 1996년 이후 주요한 대중적 쟁점이 되었다. ILO에서 실시한 것(Standing et al., 1996; ILO, 1999)을 비롯한 몇 가지 연구는 그 반대, 즉 노동시장이 극도로 유연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 "유연성의 언어"는 노동운동이 사회에서 갖는 지위의 정통성에 주요한 비판이 되어왔다.

1996년 란드 화(貨)의 급속한 평가절하 이후, 신임 재경부 장관인 트레버 마누엘(Trevor Manuel)은 의회에서 성장·고용 및 분배(GEAR)라는 새로운 거시경제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전략은 1990년대 초반 국민당이 선호했던 남아프리카재단이 제안한 대담한 접근방식을 지지했다. 그것은 재경부의 마리아 라모스(Maria Ramos) 총무국장의 말대로, 노동시장에 관한 내용이 "간단하고 모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화·통화 자유화·재정건전화 원칙,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코사투는 새 전략이 "협상불가"라고 정부에 강경하게 반응했다. NED-LAC법에 따라 정부는 경제·노동 정책을 결정하게 전에 NEDLAC에서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코사투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코사투는 NEDLAC에서의 노총의 지위나 ANC의 동맹 파트너로서 위치를 세계화의 대응에 대한 분명한 원칙들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없었다. 대신에, 코사투는 NEDLAC에서 곧 유명무실해질 재정금융정책을 다루는 위원회(the Chamber)에서 그 세부사항을 교섭하는 것을 허용받고 있을 따름이다. “근본적 개혁”은 “교섭된 자유화”의 과정이 되었다. 남아프리카의 경제정책을 폭넓게 입안하는 대신, 코사투는 기본고용조건법과 고용평등법 등의 법안들을 협상하는데 전력해야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요구는 이런 협상들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 “시장의 언어” 쪽으로 정책 의제들이 재규정되었다. 이 협상들과는 별도로, 코사투는 유럽연합(EU)과의 협상 같은 무역협상의 감시 활동과 부분적 성공을 거둔 “사회적 조항”을 지키려는 시도에도 개입해야 했다(Gostner, 1997을 보라).

1.6 결론

남아프리카의 노동운동은 사회운동 조합주의의 형태를 지녔다. 1970년대 초반 이래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은 폭넓은 아파르트헤이트 반대투쟁에 연계된 캠페인을 통해 자신을 위한 공간을 서서히 열어왔다. 남아프리카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노동억압 사회에서 노동권과 인권이 헌법에 आरो새겨진 사회로 변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노조는 새 정부와의 동맹을 통해 보다 평등한 경제 질서를 가져오려 시도했다. 그 대신 1996년 정부는 GEAR라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법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세계화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었다. 국가는 시장을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경제적 구조 조정으로부터 후퇴했다. “시장의 언어”는 지배적이 되었으며, 노동운동이 경제정책에 사회적 관심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몇몇 공간은 폐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론가들은 세계화가 어느 만큼 국민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합의의 끝어내고 있지 못하다. 남아프리카의 상황에서, 웹스터와 아틀리는 어떤 주장들이 세계화의 힘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든 자본을 금융자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기업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사용자들은 이윤극대화(profit-maximizers)를 쫓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유지가능한 이윤에 관심을 갖는 위험 기피자들(risk-avoiders)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세계적인 것(the global)은 지역적인 것(the local)에 의해 만들어지며, 남아프리카는 계급 타협이 경제적 수준에서 정치적 타협을 반복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왔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성과를 얻어내는 조직 노동의 능력이 이러한 계급 타협의 중심이다.

보다 냉소적인 분석가들은 NEDLAC 같은 기관에의 노동운동의 참여가 자유주의적 프로젝트로의 노동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Barchiesi, 1997, 210쪽).

다른 논객들은 보다 유보적이다. 클레르크(1998)는 남아프리카의 단체교섭 제도가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순된 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홀룽구(Buhlungu)는 노동운동이 몇 가지 제도와 세계화의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영향력을 얻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1999).

하지만, 분명한 점은 세계화가 경제적 힘으로서, 혹은 이데올로기로서 남아프리카의 경제 운영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 민주화 국면(헌정주의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들 수 있는 NEDLAC과 같은 구조적 측면에서)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일부로서의 코사투의 지위 또한 변했다. 노동운동은 지금 노동권을 위한 캠페인에서 얻은 성과들과 세계화 국면 속에서의 정치적 민주화를 방어해야 한다. 언급된 대로, 웨스터와 아들러(1998)는 이것을 “교섭된 자유화”로 묘사한다. 하지만, 자유화가 협상되는 제도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캠페인에만 기반을 둔 협소한 접근방식은 더 이상 진보적 노동운동의 대안(option)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2부에서는 남아프리카 노조의 최근의 세계화 대응 캠페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자료

인터뷰

Bonner, Chris. 1999. Director: Development Institute for Training, Support and Education for Labour (Ditsela). Personal interview conducted by Andries Bezuidenhout.

Buhlungu, Sakhela. 1999. Lecturer: Sociology,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Personal interview conducted by Christine Psoulis.

Coleman, Neil. 1999. Head of COSATU parliamentary office, Cape Town. Telephone interview conducted by Andries Bezuidenhout.

Du Plessis, Adrian. 1999. Business representative on various structures. Personal interview conducted by Christine Psoulis.

Fine, Alan. 1999. Times Media Limited. Personal interview conducted by Christine Psoulis.

Friedman, Steven. 1999. Director of the Centre for Policy Studies. Personal interview conducted by Christine Psoulis.

Maree, Johann. 1999.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pe Town. Interview conducted via electronic mail by Christine Psoulis.

Milani, Chez. 1999. General Secretary of FEDUSA. Personal interview conducted by Christine Psoulis.

Nupen, Charles. 1999. Former director of the CCMA. Telephone interview conducted by Khayaat Fakier.

Skhosana, Mahlomola. 1999. Assistant General-Secretary of NACTU. Personal interview conducted by Andries Bezuidenhout.

Van der Walt, Dennis. 1999. Director: Collective Bargaining, Department of Labour. Personal interview conducted by Christine Psoulis.

Van Meelis, Tanya. 1999. Editor: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Personal interview conducted by Christine Psoulis.

참고문헌

Adelzadeh, A.; Padayachee, V. 1994. "The RDP white paper: Reconstruction of a development vision?" in Transformation, No. 25, pp. 1-18.

Adler, G.; O' Sullivan, G. 1996. "Rounding up the usual suspects: Recycling the labour aristocracy thesis," in Baskin, J.(ed). Against the current: Labour and economic policy in South Africa (Johannesburg, Raven).

-; Webster, E. 1995. "Challenging transition theory: The labour movement, radical reform and transition to democracy in South Africa", in Politics and Society, No. 23(1).

Barret, J. 1993. "New strategies to organise difficult sectors",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7, No. 6, pp.45-50.

Baskin, J. 1996. "Unions at the cross-roads: Can they make the transition?"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20, No. 1, pp. 8-16

Barchiesi, F. 1997. "Labour, neoliberalism and democratic politics in Nigeria and South Africa: A comparative overview", in Labour, Capital and Society, Vol. 30, No. 2, pp. 170-225.

Bendix, S. 1996. Industrial relations in the new South Africa. 3th edition (Cape Town, Juta).

Bezuidenhout, A. 1999. "Restore profitability or we pull the trigger":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South African gold mining industry in the 1990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gress of the South Af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ldanha Bay.

-; Kenny, B. 1999. The language of flexibility and the flexibility of language; Post-Apartheid South African labour market debat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gress of the South Af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ldanha Bay.

Buhlungu, S. 1994. "The big brain drain: Union officials in the 1990s",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8, No. 3, pp. 26-32

- . 1997. Working for the union: A profile of union officials in COSATU. Labour Studies Research Report No. 8 (Sociology of Work Unit,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 . 1999. Gaining influence but losing power? Labour under democracy and globalization in South Afric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gress of the South Af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ldanha Bay.

-; Psoulis, C. 1999. Enduring solidarities: Accounting for the continuity of support for the Alliance amongst COSATU memb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gress of the South Af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ldanha Bay.

Collins, D. 1994. "Worker control",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8, No. 3, pp. 33-42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COSATU). 1997. Report of the September Commission of Enquiry into the Future of the Trade Unions(Johannesburg)(Online: <http://www.COSATU.org.za/congress/septcomm.htm>).

Ewert, J. 1992. "Restructuring industry on the factory floor: Neo-Fordist tendencies at Western Cape firms", in *South Af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 No. 1, pp. 1-22

- . 1997. "Training for 'world-class manufacturing': Rhetoric and reality in the South African engineering industry", in *South African Journal of Labour Relations*, Vol. 22, No. 2, pp. 25-41.

Fraser, D. 1991. "The ICFTU in South Africa: Coming on strong." (Interview by D. Pillay)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5, No. 7, pp. 27-31.

Friedman, S. 1987. Building tomorrow today: African workers in trade unions 1970-1984 (Johannesburg, Ravan).

Gostner, K. 1997. Organised labour and globalization: A case of David and Goliath? MA research report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 Joffe, A. 1998. "Negotiation the future: Labour's role in NEDLAC", in *Law, Democracy and Development*, No. 2, pp. 131-151.

Gotz, G. 2000. "Shoot anything that flies, claim anything that falls: Labour and the changing definition of the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in Adler, G.; Webster, E.(eds.) *Trade union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Africa, 1985-1997*(London, Macmillan).

Hudson, J. 1991. "The practice of solidarity",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5, No. 7, pp. 40-43.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1999. Studies on the soci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South Africa (Geneva, ILO).

Joffe, A.; Kaplan, D.; Kaplinsky, R.; Lewis, D. 1995. Improving manufacturing performance in South Africa, Report of the Industrial Strategy Project (Cape Town, UCT Press).

Kenny, B.; Bezuidenhout, A. 1999. "Fighting subcontracting: Legal protections and negotiating strategies",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23, No. 3, pp. 39-46.

-; Webster, E. 1999. "Eroding the core: Flexibility and the resegmentation of the South African labour market", in *Critical Sociology*, Vol. 23, No. 3, pp. 216-243.

Klerck, G.1998. "Between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Collective bargaining and South Africa's new Labour Relations Act", in *Af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 No. 1, pp. 85-113.

Kraak, A. 1996. Transforming South Africa's economy: From racial Fordism to neo-Fordism? in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No. 17, pp. 39-74.

Labour Market Commission(LMC). 1996. Restructuring the South African Labour Market: Repor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to Investigate Labour Market Policy. RP 83/1996.

Lambert, R. 1992. "Constructing the new internationalism: Australian trade unions and the Indian Ocean Regional Initiative",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6, No. 5, pp. 66-73.

- 1995. "COSATU and the challenge of the Asian economies",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9, No. 1, pp. 91-92.

- 1998. "Globalization; Can unions resist?"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22, No. 6, pp.72-77.

Marais, H. 1998. South Africa: Limits to change,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formation(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Maree, J. 1987. The independent trade unions, 1974-1984(Johannesburg, Ravan).

Marie, B. 1992. "COSATU faces crisis: 'Quick fix' methods and organizational contradictions",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6, No. 5, pp. 20-26.

Munck, R. 1999. "Labour dilemmas and labour futures", in Munck, R.; Waterman, P. Labour worldwid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lternative union models in the New World Order(London, Macmillan).

Naidoo, J.1991. "More that unites than divides" (Interview with C. Mather and K. Von Holdt)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5, No. 7, pp. 16-21.

Naidoo, R. (ed.). 1999. Unions in transition: COSATU into the new millennium (Johannesburg, Naledi).

Ngcukana, C. 1991. "Rooting out dependency" (Interview with C. Mather and K. Von Holdt)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5, No. (7), pp. 22-26.

Normative Economic Model (NEM). 1993. The restructuring of the South African economy: A normative model approach (Pretoria, Central Economic Advisory Service and Government Printers).

Padayachee, V. 1998. "Progressive academic economists and the challenge of development in South Africa's decade of liberation", in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No. 77, pp. 430-431.

Psoulis, C.; Moleme, K.; Spratt, J.; Ryan, E. 1999. Workplace forums: What is their future? Labour Studies Research Report No. 9 (Johannesburg,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Sociology of Work Unit).

Regini, M.. (ed.). 1992. The future of labour movements (London, Sage/ISA).

Roux, R. 1990. "SACTU: End of an era",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4, No. 8, pp. 47-51.

Seidman, G. 1994. Manufacturing militance. Workers movements in Brazil and South Afric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imons, J.; Simons, R. 1983. Class and colour in South Africa (London, International Defence Aid).

South Africa Foundation (SAF). 1996. Growth for all: An economic strategy for South

African (Johannesburg).

Southall, R. 1995. *Imperialism or solidarity? International labour and South African trade unions* (Cape Town, UCT Press).

- 1996. *International labour and South African trade unions*, Labour Studies Research Report No. 7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Sociology of Work Unit).

Standing, G. 1996. "Tackling the jobless", in *Mail and Guardian*, 26 Nov.

- 1997a. "Globalization, labour flexibility and insecurity: The era of market regulation". in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3, No. 1, pp. 7-37.

- 1997b. *Labour market dynamics in South African industrial firms: The South African labour flexibility survey*. Unpublished paper (Pretoria: Conference on Labour Markets and Enterprise Performance in South Africa, Reserve Bank).

-; Sender, J.; Weeks, J. 1996. *Restructuring the labour market; The South African challenge*. An ILO country review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aylor, R. 1998. *Trade unions and trans-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1999. *Globalization with a human face: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UNDP).

Vlok, E. 1998. "An unholy alliance? Organising the unemployed",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22, No. 5, pp. 40-45.

Von Holdt, K. 1993a. "A new labour internationalism?"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7, No. 2, pp. 76-79.

- 1993b. "The new world economy-Challenge by labour",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7, No. 5, pp. 72-79.

Webster, E. 1985. *Cast in a racial mould: Labour process and trade unionism in the foundries* (Johannesburg, Ravan).

- 1995a. "Taking labour seriously: Sociology and labour in South Africa" in Van der Merwe, A.J. (ed.). *Industrial sociology: A South African perspective* (Johannesburg, Lexicon).

- 1995b. "NEDLAC-Corporatism of a special type?", in *South African Labour Bulletin*, Vol. 19, No. 2, pp. 40-45.

- 1999. ILO research project on the contribu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to employment protection and to competitiveness: The case of South Africa (Johannesburg, Sociology of Work Unit).

-; Adler, G. 1998. *Towards a class compromise in South Africa's 'double transition': Bargained liberaliz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Paper presented at the 14th World Congress of Sociology, Montreal, Canada. 26 July- 1 Aug.

Wood, G. 1999. *Shopfloor democracy in the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in the late 1990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gress of the South Af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ldanha Bay.

[표1] 등록 조합원수, 1976-1995

연도	등록노조수	조합원수
1976	173	673,000
1977	174	677,000
1978	174	698,000
1979	167	727,000
1980	188	781,000
1981	200	1,054,000
1982	199	1,226,000
1983	194	1,288,000
1984	193	1,406,000
1985	196	1,391,000
1986	195	1,698,000
1987	205	1,879,000
1988	209	2,084,000
1989	212	2,130,000
1990	209	2,459,000
1991	200	2,750,000
1992	194	2,905,000
1993	201	2,890,174
1994	213	2,470,481
1995	248	2,690,272

출처:인력자원부(이후 노동부) 연례보고서, 1976-1995

[표2] 조합원수 및 조직률, 1985-1998

	1985	1987	1989	1991	1993	1996	1998
조합원수	1,391,423	1,887,940	2,130,117	2,750,400	3,272,768	3,016,933	3,801,388
COSATU 조합원수	400,000	712,231	924,499	1,205,307	1,205,244	1,639,865	1,713,533
비COSATU 조합원수	991,423	1,175,709	1,205,618	1,545,093	2,067,524	1,377,068	2,087,855
비노조원수	6,451,277	6,128,560	6,026,583	5,237,100	4,484,897	4,573,067	3,746,612
전체피고용자수	7,842,700	8,016,500	8,156,700	7,987,500	7,757,665	7,590,000	7,548,000
전체피고용자수 (농업부문제외)	6,090,900	6,265,500	6,454,500	6,315,600	6,115,365	5,238,572	4,922,029
조직률 (농업부문제외)	18%	24%	26%	34%	43%	40%	51%

출처:Naidoo(1999, 16-17쪽)